

Juhun Lee

Professor Hyejin Kim

Translation Practicum

15 May 2024

개인정보 운동가들이 챗GPT의 “환각 현상”을 문제 삼아 오픈AI를 저격하다

사생활 보호 운동가들이 챗GPT(ChatGPT)가 개인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계속해서 생성한다는 이유로 개발사인 오픈AI(OpenAI)를 관계 당국에 고발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하는 가운데, IT 기업은 부정확한 정보를 생성하는 문제를 해결하라는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오픈AI에서 개발한 생성형 인공지능인 챗GPT는 주어진 질문을 존재하지 않거나 틀린 정보로 답하는 이른바 “환각 현상”을 겪는다고 알려져 있다.

1 주요 사건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비영리단체 노비(noyb)는 영어 관용구 “none of your business(네가 알바 아니다)”의 머릿글자를 딴 만큼, 개인정보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다. 이 단체는 29일 오픈AI를 유럽 연합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위반으로 오스트리아 개인정보 감시 당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유럽 연합에서 제정, 집행 중인 GDPR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령으로 잘 알려져 있다. 노비는 오픈AI가 잘못된 개인정보를 생성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미 생성된 정보도 지우려 하지 않는다면 한 익명의 공인을 대신하여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노비는 “특정 인물에 대한 정보를 만들어내버리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고발장에 적었다.

한 사례로, 챗GPT에게 피해자의 생일과 같은 정보를 물어보면 “여러 부정확한 정보”를 생성해냈고, 이에 대해 오픈AI는 “챗GPT가 틀린 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답변을 피했다고 노비는 주장한다. 오픈AI는 그 대신 피해자에 관한 모든 정보가 보이지 않도록 이름 등 개인정보를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 생성을 막거나 특정 정보를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노비는 “이 조치는

사용자가 보지만 못 할 뿐”이며 챗GPT에 저장된 부정확한 정보를 고치지는 않는다고 반발했다.

또한 오픈AI는 당사자 요청에도 어떤 개인정보가 어떤 출처로부터 누구와 공유되었는지와 같은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마르티에 데 흐라프 노비 소속 변호사는 “정보 공개 의무는 모든 회사에 적용된다”며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정보 출처를 기록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관해 포브스는 오픈AI에게 의견을 요청했으나 곧바로 답변하지 않았다. 오픈AI는 이미 “환각 현상”이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도구에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을 시인한 바 있다.

2 중요 인터뷰

데 흐라프 변호사는 “잘못된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도 문제지만, 특정 인물에 대한 틀린 정보는 더더욱 큰 파장을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들이 현재 챗GPT와 같은 챗봇을 유럽 연합 규제에 따르게 만들 방법이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 만약 챗봇이 정확하고 투명성 있는 정보를 생성할 수 없다면, 그 챗봇은 개인에 관한 정보를 생성할 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기술이 법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라야지,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3 뉴스 거리

이번 고발은 챗GPT 모델의 사용 및 학습 방법에 대한 오픈AI의 책임을 더욱 강화했다. 오픈AI처럼 생성형 AI를 제작하는 기업들은 이미 수많은 저작권 침해 소송에 직면했고, 모델을 학습하는 데 사용한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 등 수많은 법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질문에 대해 부정확하거나 틀린 정보를 마치 진실인 것처럼 답하는 이른바 “환각 현상” 역시 여러 법정 공방의 주제로 떠올랐다. 한 사례로, 미국 조지아 주의 한 라디오 진행자가 오픈AI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다. 오픈AI는 이미 유럽의 강력한 개인정보 관련 규제에 맞닥뜨린 경험이 있다. 지난 2023년, 이탈리아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며 오픈AI도 개발 방침을 바꾸어야 했다.

4 눈여겨볼 점

GDPR은 세계에서 가장 큰 유통 시장이라는 유럽 연합의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들의 운영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법령이다. 동시에 전 세계 매출액의 4%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제 기관의 철퇴이기도 하다. 개인정보 관련 수사가 국경을 넘어 다른 유럽 국가까지 연루되어 있다면 EU 회원국의 모든 개인정보 감시 당국이 협력하여 조사하는 거대한 수사로 변질 수도 있다. 노비는 이 사안도 같은 규모로 수사하여 오픈AI가 제대로 기준을 충족하게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지만, 조사가 완료되기까지 수 년이 걸릴 수도 있다. AI 업계에서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주시하고 있다.

5 주요 배경

노비는 2017년 창립 이래로 총 839건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총 17억 4천만 유로(약 2조 5700억 원) 규모의 벌금을 유도하여 유럽 개인정보 보호를 이끄는 선봉대 역할을 해 왔다. 막스 슈렘스 노비 공동 창립자는 개인정보 보호 운동가이자 메타(Meta)와 같은 대기업이 미국과 유럽 사이에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맺은 협약에 제동을 건 변호사이다. 슈렘스의 활동은 미국과 유럽 연합 간의 주요 협약 중 “개인정보 방패 협약”과 “안전 항만 협약”을 뒤집어 기업들로 하여금 온라인 사업을 재고하게 만들기도 했다.